日천년고찰, 가상현실로 만난다

진언종 총본산 닌나지 관음당
이전엔 매월 관음재일만 참배
VR 제작으로 상시 공개 가능
실측 데이터에 그래픽 더해져

박영빈 객원기자


다양한 그래픽효과 함께 제작된 닌나지 관음당 VR.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세계문화유산이자 불교예술로 유명한 교토의 천년고찰 닌나지(仁和寺). 중세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닌나지 관음당이 VR로 공개된다. 6월 19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 '교토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이 특별한 공개를 주요 보도했다.

888년 창건된 닌나지는 진언종 오무로파(御室派)의 총본산이다. 일본 왕실의 원찰이었던 이 곳은 100여 년 전까지는 일본의 왕족이 출가해 주지를 맡는 등 그 위세와 격이 높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관음당은 몇 차례의 소실을 겪고, 1640년에 재건된 법당이다. 본존으로는 11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협시로 부동명왕과 항삼세명왕상의 삼존상이 모셔져 있으며, 삼존불의 주변으로 28부중 등의 신장을 모셔 총 33구의 불상이 법당에 봉안돼 있다. 또 관음당 내부 사방에는 33응신도와 관세음보살 구난, 육도윤회도 등의 벽화가 극채색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중세 불교미술의 보고로 손에 꼽히고 있다.

이러한 관음당의 예술성은 일본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유명하다. 2년 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닌나지 특별전에서 1대1로 재현 전시된 관음당의 불단을 관람하기 위해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전시회에 몰렸다. 더욱이 관음당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수행정진의 공간이란 점도 그 열기에 한몫했다.

이런 관음당의 모습이 이제 VR로 공개된다. 닌나지 측은 "매달 관음재일에만 법당의 문을 열어 대중들에게 먼 모습만을 친견하게 했었다. 그러나 좀 더 가깝게 사람들에게 관음당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VR로 제작하게 됐다"며 VR공개를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닌나지는 또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관음당의 해체 수리를 위해 각 불상들의 초정밀 데이터를 실측했다. 이를 토대로 VR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 13분의 길이의 관음당 VR은, 관음당 전체를 360도로 모두 볼 수 있게 제작했으며 33구의 불상들을 각각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근접성까지 재현했다. 이 덕분에 각 불상들의 표정들은 물론, 손과 발의 세밀한 선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한 시각적 감상뿐만 아니라 VR기기에 붙은 스피커를 통해 보고 있는 불상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닌나지 측은 "VR설명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참배객들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의 4개 국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닌나지의 집행장인 요시다 세이유 스님은 "이번 VR공개는 이번 가을에 있을 본격적인 공개행사의 선행적인 체험판이 다음달 31일까지 공개한 후 피드백을 받아 세부적인 수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좀처럼 대중에게 열리지 않는 관음당의 모습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확한 자료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VR공개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참배방식, 혹은 관광의 체험으로써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닌나지 측은 이번 공개행사와 동시에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위해서 만반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VR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기기의 소독, 체험시의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행사를 예약제로 진행하여 참가자의 신원 파악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미얀마, 라카인주 인터넷 차단 이유는?

국제 인권단체, 은폐의혹 제기
'제2로힝야 사태 발생' 우려도


미얀마의 라카인주 주민들이 오래 지속되는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사진출처=AFP

미얀마 정부가 반군 활동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서부 라카인주(州) 8개 지역과 친주(州) 1개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한지 지난 6월 21일로 1년이 됐다.

라카인주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인종 학살이 자행됐던 곳으로, 최근에는 이곳에서 불교계 소수민족 라카인족(아라칸족)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반군 아라쿤과 미얀마 군부와의 충돌이 발발했다. 이에 '제2 로힝야족 사태'를 준비하는 미얀마 정부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차단을 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월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라카인주 내 151개 난민촌에는 2018년 11월 시작된 미얀마 군부와 라카인족 간 충돌로 피신한 16만여 명이 머물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들이 난민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20일 인터넷을 차단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인터넷 차단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장기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인권 단체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라카인족에 대한 학살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군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크다. 인터넷 단절로 인한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엔 난민기구 방콕 사무소는 지난 19일 "전례 없는 인터넷 정전으로 민간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부를 향해 라카인주의 인터넷 복원을 요청했다. 유엔 난민기구는 "미얀마 군부의 탄압과 인터넷 차단으로 지역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복원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최소 오는 8월 1일까지는 인터넷 차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마저도 치안이 호전돼야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생애 첫 공식음반 발표

뮤지션 쿠닌 부부 제안으로 시작
85세 생일인 7월 6일 발매 예정


달라이라마와 음반작업을 함께한 아브라함 쿠닌과 주넬 쿠닌 부부. 사진출처=AP통신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오는 7월 6일 생애 첫 음반 '이너 월드(Inner World)'를 발표한다. 지난 6월 20일 일본의 '뉴스위크', '야후재팬 뉴스'는 놀라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뉴질랜드 출신의 뮤지션 부부 주넬 쿠닌과 아브라함 쿠닌의 제안으로 제작된 이번 앨범은 총 11곡이 수록됐다. 달라이라마의 진언염송과 함께 음악이 곁들어진 곡으로, 이중 3번 트랙인 '자비(Compassion)'는 지난 9일 달라이라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행 공개됐다.

앨범을 제작한 주넬 쿠닌은 앨범을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오래전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달라이라마의 육성을 찾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넬은 "그냥 법문녹음은 많았지만, 가볍게 듣기 좋은 음악과 함께한 콘텐츠가 없었다"며 직접 음원을 제작할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주넬은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에 달라이라마의 육성으로 음원을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으나 사무국은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주넬은 포기하지 않고 2015년 인도 순례 중 직접 쓴 편지를 달라이라마 비서진을 통해 전달했다.

달라이라마는 주넬의 제안에 대해 "내 인생의 목적은 가능한 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음악은 의견과 차이를 넘어 인간 본래의 모습에 닿아,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며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넬과 아브라함은 먼저 달라이라마가 가장 즐겨하는 기도문과 진언들을 먼저 녹음하고 지혜, 용기, 치유, 어린이등의 테마로 분류할 것을 논의한 끝에 11곡의 음원으로 만들어 냈다.

주넬은"달라이라마 성하는 음악이 가진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 음악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달라이라마와 작업하던 당시를 기쁘게 회상했다.

최종 완성까지 5년이 걸렸지만 이 앨범을 위해 수 십 명의 유명뮤지션들이 제작에 참가했다. 특히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인도의 유명 가수 아누쉬카 샹카가 곡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앨범에는 호주 출신의 예술가이자 비구니인 로빈나 컬틴 스님이 직접 그리고 쓴 불교에 대한 소책자와 각 진언에 대한 해석이 동봉되어 발매된다.

공식음원은 오는 달라이라마의 85세 생일인 7월 6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음원의 모든 수익은 달라이라마와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 계획한 국제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성 · 감성과 윤리 학습프로그램(SEEL)'과 이를 진행하는 마인드&라이프 연구소에 기부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승려, 성소수자 지지 행보 화제

방콕 샤인 와라담모 스님


태국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샤인 와라담모 스님. 사진출처=게이네이션

태국 불교계에서 낙태 합법화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승려가 화제를 끌고 있다. 샤인 와라담모 스님이다. 태국은 외부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천국'으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극심한 차별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게이네이션'(Gaynation)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방콕 북부의 한 사찰의 허름한 암자에서 지내는 샤인 스님을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불교 지도층 대부분이 낙태를 죄로, 성소수자들을 전생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진보적 의견을 피력하는 스님이 있다"며 "혁명적인 일과 다름없다"고 극찬했다.

과거 지역 매체를 통해 "나 역시 30년 전 스님이 될 때만 해도 (낙태와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이 바뀌었다"고 밝힌 스님은 "낙태와 성소수자 문제는 강요와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과거 불교 문헌에도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나는 불교 가르침이 사회적 현실에 따라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람과 종교 중에서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 방법이 바로 삶과 관습의 변화에 따라 종교적 가르침을 변형해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 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사당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토목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